

-(으)ㄹ 양으로

~할 양으로 — ~하려는 생각으로

예스러운 문체로 목적을 나타냅니다. 다음 표현의 양과 같은 말입니다: -(으)ㄹ 양이면. 맞춤법 함정도 같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양으로	하다 → 할 양으로
자음으로 끝남	-을 양으로	먹다 → 먹을 양으로
ㄹ로 끝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양으로
맞춤법	량이 아니라 양	두음 법칙
관련 형태	-(으)ㄹ 요량으로	같은 뜻, 조금 더 흔함
현대어 대응 표현	-(으)려고	놀라게 하려고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. 만들다는 만들 양으로가 됩니다. 양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맞춤법: 이 말은 때때로 량으로로 적히기도 하지만, 표준 맞춤법은 양으로입니다. 띄어 쓴 뒤에는 양심, 요리처럼 첫소리 ㄹ이 ㅇ으로 바뀝니다.

앞 절은 행동하는 동안 품고 있던 의도: 놀라게 할 양으로 뒤에서 다가갔다.를 나타냅니다. 그 목적은 대개 드러내 말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속으로 마음먹은 것입니다.

문체는 문어적이며 다소 예스럽습니다. 현대 한국어에서는 -(으)려고나 -(으)ㄹ 생각으로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놀라게 할 양으로 뒤에서 살며시 다가갔다.
- 2 잠시 쉴 양으로 나무 그늘에 앉았다.
- 3 기어이 이길 양으로 밤새 준비했다.
- 4 몰래 빠져나갈 양으로 뒷문을 살폈다.
- 5 직접 만들 양으로 재료부터 사 모았다.
- 6 환심을 살 양으로 온갖 선물을 보냈다.

■ 비교

-(으)ㄹ 양이면
같은 명사 양이지만 구문이 다릅니다. 양이면은 의도를 조건으로 내세우고, 양으로는 그 의도를 행동의 목적으로 나타냅니다.
기왕 할 양이면 제대로 해라. (할 생각이라면) / 놀라게 할 양으로 다가갔다. (놀라게 하려고)

-(으)려고
여디서나 쓸 수 있는 현대어 대응 표현입니다. 양으로 쓰면 문장이 문어적이거나 예스럽게 느껴집니다.
놀라게 하려고 다가갔다. (현대어) / 놀라게 할 양으로 다가갔다. (예스러운 문장)

-(으)ㄹ 요량으로
매우 비슷하며 조금 더 흔합니다. 요량에는 무언가를 따져 헤아렸다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.
쉴 양으로 앉았다. / 쉴 요량으로 앉았다.

■ 주의

- ✗ 놀라게 할 량으로 다가갔다.
- 놀라게 할 양으로 다가갔다.
표준 맞춤법에서는 여기서 양으로 적습니다. 띄어 쓴 뒤에는 양심, 요리처럼 첫소리 ㄹ이 ㅇ으로 바뀝니다.
- ✗ 직접 만들을 양으로 재료를 샀다.
- 직접 만들 양으로 재료를 샀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처럼 이미 ㄹ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✗ 야, 쉴 양으로 앉았어.
- 야, 좀 쉬려고 앉았어.
양으로는 문어적이고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는 -(으)려고를 씁니다.